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 브릭스 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국을 주목하자
: 소비와 물류시장으로 떠오르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행인: 김주현
편집주간: 한상완
편집위원: 주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브릭스 대체시장, 동유럽의 '비셰그라드' 3국을 주목하자

: 소비와 물류시장으로 떠오르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Executive Summary i

1. 비셰그라드 경제권의 부상 1

2. 비셰그라드 경제권의 성장 잠재력 4

3. 시사점 8

【별첨】 비셰그라드 3국의 경제 현황 9

【HRI 경제 통계】 27

< 요약 >

■ 비셰그라드(Visegrad) 경제권의 부상

비셰그라드 경제권은 동유럽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3국을 의미한다. 폴란드 등은 구소련 붕괴 이후 시장경제 질서에 성공적으로 편입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셰그라드 경제권이 유럽연합(EU)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6%에서 2012년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동기간 비셰그라드 3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3.5%)은 EU평균(1.9%)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 중 한국의 4대 교역권이고 4대 투자대상 지역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비셰그라드 3국의 경제 현황

(폴란드) 유럽 국가들 중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유럽 국가 중에서 최대의 인구 및 경제 규모를 보유한 폴란드는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체코) 경기침체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개선세가 확인하다. 인프라 수준 및 일인당 소득 측면에서 서유럽에 가장 근접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헝가리) 유로존 위기 이후 경제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숙련된 노동력과 우수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동차, IT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 비셰그라드 경제권의 성장 잠재력

첫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셰그라드 3국의 고정투자는 1995년 이후 연평균 7.0%씩 증가하여 EU 평균(3.1%)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대규모 해외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2년 기준 274억 달러에 이른다.

둘째, 생산기지로서 EU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남유럽, CIS 국가로의 수출입이 용이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셋째,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다. 비셰그라드 3국은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소득 수준이 가장 높다. 일인당 소득 증가율이 5.4%에 이르고 있으며 최종소비지출 또한 연평균 7.4%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물류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셰그라드 3국은 동·서와 남·북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다. 글로벌 기업이 폴란드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시사점

첫째, 생산 및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낮은 임금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중동부 유럽 최고의 소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한-EU FTA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한다. EU 국가들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물류시장에서의 신사업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유럽대륙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물류시장 신사업 기회에 대한 선점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경제 및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문화 교류도 확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 비세그라드 경제권의 부상

○ 국가 개요

- 비세그라드(Visegrad) 3국¹⁾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의미하며, 동유럽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흥 경제권을 형성

- 서쪽으로는 독일 등 서유럽 국가,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등 CIS 국가, 남쪽으로는 발칸반도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
- 유럽연합(EU)에는 가입,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는 미가입 상태



- 舊소련 붕괴 후 시장경제 질서로 편입

- 폴란드는 바웬사의 자유노조 운동 이후 1989년 시장경제로 전환
- 체코²⁾와 헝가리 역시 공산정권의 붕괴와 시장경제 체제 전환에 성공

<폴란드/체코/헝가리 국가 개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면적	313천km ² (한반도의 1.4배)	79천km ² (한반도의 0.3배)	93천km ² (한반도의 0.4배)
수도	바르샤바(170만명)	프라하(124만명)	부다페스트(180만명)
인구	3,820만명	1,050만명	996만명
민족	폴란드인(96.7%)	체코인(94%)	마자르족(98.5%)
종교	기독교(89.8%), 동방정교(1.3%)	기독교(39%), 개신교(6%)	기독교(51.9%), 칼뱅주의(15.9%)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	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
언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통화단위	즐로티(PLN)	코루나(CZK)	포린트(HUF)
환율	3.26 PLN/USD	19.57 CZK/USD	225.4 HUF/USD
GDP	4,700억 달러	1,935억 달러	1,299억 달러
1인당GDP	12,302달러	18,300달러	13,045달러

자료: CIA, 수출입은행, IMF, KOTRA.
주: 2102년 기준(환율은 2012년 연평균 환율).

- 1) 비세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이란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열린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3국 정상회담에서 창설,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양분되면서 현재는 4개국의 협의체로 구성.
- 2) 체제 전환 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였으나 민족적·경제적·문화적 이질성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독립.

○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세그라드 3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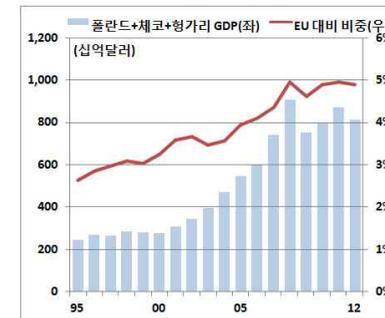
-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EU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 EU 경제에서 차지하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GDP 비중은 1995년 2.6%에서 2012년 4.9%로 지속적으로 증가
-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5.4% 수준에 이를 전망
- 특히 GDP 규모는 2000년(2,760억 달러)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2년 기준으로 8,100억 달러 달성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이전의 빠른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를 유지

- 비세그라드 3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EU 평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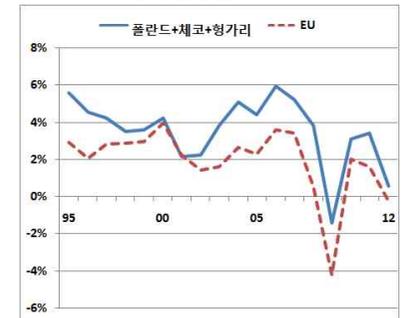
- 1995년 이후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5%로 EU 평균인 1.9%를 크게 압도하고 있음
-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폴란드(4.4%)의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체코(2.8%), 헝가리(2.0%) 순서
- 특히 EU 가입(2004년)을 전후하여 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

<GDP 규모 추이>



자료: IMF.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World Bank.

주: 2005년 불변가격(달러) 기준으로 산출.

○ 비셰그라드 경제권은 유럽연합(EU) 소속 회원국(27개국) 중에서 한국의 4대 교역권, 4대 투자대상 지역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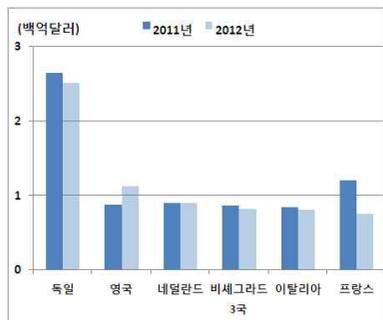
- 교역규모 측면에서 비셰그라드 3국은 EU 경제권 중에서 한국의 4대 수출입 시장으로 부상

- 2012년 기준 비셰그라드 경제권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보다는 낮고 이탈리아보다는 높음
- 한국과 폴란드 등 3개국의 교역 규모는 對 EU 교역액의 약 8.2% 비중을 차지
- EU 국가들 중에서 폴란드는 한국의 5번째 수출국이자 16번째 수입국, 체코는 11번째 수출국이자 15번째 수입국, 헝가리는 14번째 수출국이자 17번째 수입국

- 폴란드 등 비셰그라드 3국은 EU 경제권 중에서 한국의 4번째 투자대상 지역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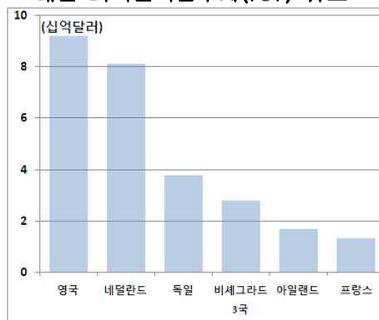
- 한국의 EU 국가들에 대한 투자 중에서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4번째 투자대상 지역(EU 전체에 대한 투자규모의 8.7% 비중)에 해당
- 한국의 비셰그라드 3국에 대한 투자액 중에서 폴란드는 47.3%, 체코는 39.3%, 헝가리는 13.3% 차지

<한국과 EU 주요 국가의 교역 규모>



자료: 무역협회.
주: 교역규모 = 수출액 + 수입액.

<한국의 EU 주요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2013년 3월까지의 누적 투자금액 기준.

3)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비셰그라드 4국을 살펴보면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권, 영국과 네덜란드에 이은 3대 투자 대상지역에 해당.

2 비셰그라드 경제권의 성장 잠재력

○ 대규모의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지속적인 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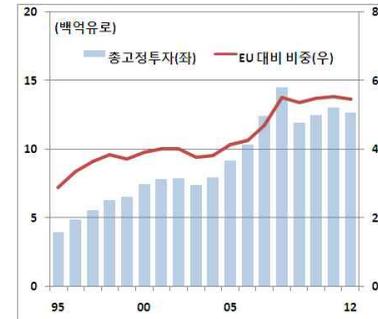
- 체제 전환 이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폴란드 등 3개국의 고정투자는 1995년 399억 유로에서 2012년 1,266억 달러로 연평균 7.0%씩 성장
- 한편 동일 기간 EU 전체의 평균 고정투자 증가율은 3.1%에 불과
- 특히 폴란드 등이 EU에 가입한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
- 또한 EU 소속 27개 국가의 총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5년 2.9%에서 2012년 5.5% 수준으로 증가

- 투자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의 자본은 많은 부분 해외에서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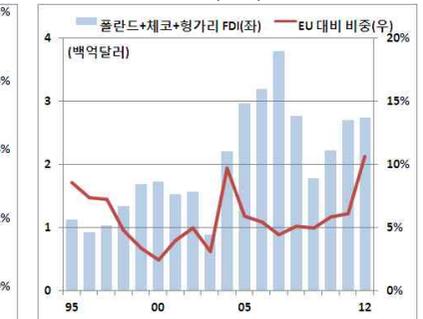
- 전세계로부터 비셰그라드 3국으로의 자본유입은 2004년 EU 가입 이후 급격히 증가
- 2008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자본 유입은 일정 부분 회복하여 2012년 기준 274억 달러 수준
- 그러나 2008년 이후 EU 전체로의 자본 유입 감소는 비셰그라드 3국보다 더욱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
- 1995년 이후 비셰그라드 경제권으로 유입된 자본 중에서 폴란드는 50.0%, 체코는 26.9%, 헝가리는 23.1% 비중을 차지

<총고정투자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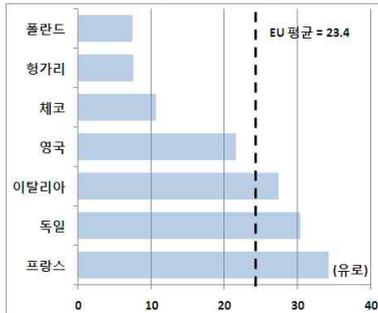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추이>



자료: UNCTAD.

-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유럽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여 EU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
- 비셰그라드 경제권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질적인 수준은 높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수 보유
 - 폴란드(7.4 유로), 체코(10.6 유로), 헝가리(7.5 유로)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서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EU 평균(23.4 유로)보다 낮음
 - 비셰그라드 경제권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고등교육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공학 등의 분야에서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들을 다수 보유
- 체코 등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지리상의 이점을 활용한 수출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추구
 - 비셰그라드 3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생산거점을 제공하여 서유럽, 남유럽, CIS 국가에 수출입하는 방식의 성장 전략 채택
 -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이러한 성장 전략은 70% 이상을 차지하는 對 EU 무역 의존도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음

<시간당 노동 비용>



자료: Eurostat.
 주: 1) 농업과 공공부문은 제외하고 산출
 2)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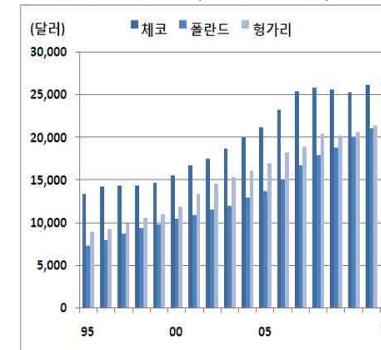
<對 EU 무역 의존도 비중>

	수출	수입
폴란드	76%	57%
체코	83%	74%
헝가리	76%	70%

자료: Central Statistics of Poland, Hungarian Central Statistics Office, Czech Statistical Office.
 주: 2012년 기준(체코는 2011년 기준).

-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가 점차 증가
- 비셰그라드 3국은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소득이 높은 편이며, 거의 서유럽 선진국에 근접하는 생활 수준 향유
 - 2012년 기준 체코의 일인당 소득(구매력 기준)은 약 26,200달러, 폴란드와 헝가리는 약 22,100달러로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수준
 - 1995년 이후 폴란드의 일인당 소득 증가율은 약 6.7%, 헝가리는 5.5%, 체코는 4.1% 수준
- 헝가리 등 3개국 소비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비셰그라드 3국의 최종소비지출액은 1995년 1,429억 유로에서 4,824억 유로로 연평균 7.4%의 증가세 유지
 -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폴란드는 7.8%, 체코는 7.5%, 헝가리는 6.0%의 소비지출 증가세를 기록
 - EU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액 비중 또한 1995년 2.6%에서 2012년 4.7%로 증가

<일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 추이>



자료: World Bank.

<최종소비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Eurostat.

○ 동-서 유럽을 잇는 지리적 장점, 글로벌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입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물류 수요 등 물류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

- 비셰그라드 경제권의 물류 인프라 수준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나 세계 평균을 상회

- 체코(5.5)와 헝가리(4.8)의 전반적인 물류 인프라 수준은 전세계 평균(4.3)을 상회하지만 폴란드(4.0)는 약간 하회
-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 역량 보유
- 특히 체코의 물류 인프라 수준은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서유럽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

- 물류 인프라, 적시성 등 전반적인 물류 경쟁력 수준 또한 세계 평균 및 다른 동유럽 국가들보다 우수

- 폴란드(3.4), 체코(3.5), 헝가리(3.0)의 물류 경쟁력은 전세계 평균(2.9)이나 루마니아(2.8), 불가리아(2.8) 등 주변국보다 높음
- 체코는 전반적인 물류 경쟁력 또한 서유럽 선진국에 근접하였고, 폴란드는 인프라 수준(3.0)은 낮으나 물류 적시성(4.5)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함
- 한편 헝가리는 물류 인프라(3.1)는 양호하나 통관(2.8)이나 국제 운송(2.8), 물류 역량(2.8) 등이 낮은 수준

<동유럽 주요 국가의 물류 인프라 수준>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종합
체코	3.7	4.6	4.6	6.0	5.5
슬로바키아	3.7	4.5	4.0	3.4	4.3
폴란드	2.6	2.4	3.5	3.8	4.0
헝가리	4.0	3.5	4.0	4.2	4.8
루마니아	1.9	2.2	2.6	3.4	2.8
불가리아	2.5	3.0	3.7	4.0	3.3

자료: WEF(2012년 기준).
주: 7점 만점 기준.

<동유럽 주요 국가의 물류 경쟁력>



자료: World Bank.
주: 5점 만점 기준.

3. 시사점

- 첫째, 비셰그라드 경제권의 생산기지,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 우수한 인적자원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활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
 -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체코, 폴란드 등의 내수시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
- 둘째, 한-EU FTA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한다.
 - 한-EU FTA 체결 이후 EU 회원국들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코 등 비셰그라드 경제권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다만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해외자본 유입증가, 글로벌 기업 진출의 가속화로 인한 경쟁 심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병행
- 셋째, 물류시장으로서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 제조업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물류시장 및 물류 인프라 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신사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 요구
 - 현지기업이나 자금력 및 정보력이 우수한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
- 넷째, 경제 및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비셰그라드 경제권 등 동유럽 지역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간부문의 동유럽 국가에 대한 관심은 서유럽 선진국에 비해 미흡
 -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폴란드, 체코 등 개별 국가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문화 교류도 확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 **HRI**

백홍기 수석연구위원 (hkback@hri.co.kr, 2072-6228)
안중기 연구원 (joonggiahn@hri.co.kr, 2072-6242)

【별첨】 비세그라드 3국의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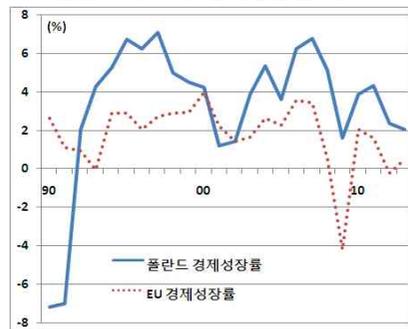
1) 폴란드

(1) 경제 및 산업 동향

○ (경제 동향) 견고한 경제성장 속에서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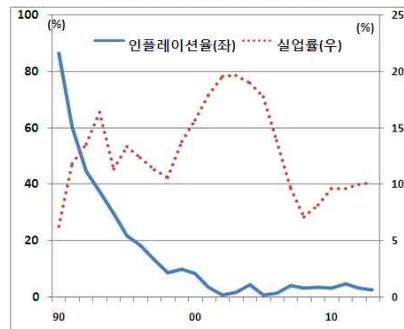
- (성장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 불구하고 고성장 지속
 - 경제 개발이 본격화 된 1990년 중반과 EU 가입(2004년) 이후에 고성장 기록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U 국가 중 가장 높은 1.6%의 경제성장률 기록
 -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 2.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유럽 국가들 중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음
- (물가/실업) 물가수준은 안정적이나 실업률은 다소 높은 수준
 - 체제 전환 직후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90년대를 거치면서 해소되었으며 최근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서 안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2011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
 - 실업률은 2003년 약 20%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EU 가입 이후 낮아져 2008년에는 약 7% 수준까지 하락, 최근에는 10%까지 재상승

<폴란드와 EU의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IMF.
주: 2012년은 IMF 추정치, 2013년은 전망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



자료: IMF.
주: 2012년은 IMF 추정치, 2013년은 전망치.

○ (산업 구조) 서비스업 및 자동차·전자 등 핵심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선진화가 진행 중

-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한편 농림어업·광업·제조업 비중은 감소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 56.5%에서 2011년 62.9%로 상승하여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
 - 한편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5년에 각각 7.9%, 3.7%, 20.2%였으나 2011년에는 각각 4.0%, 2.8%, 17.6%로 감소
-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동차·전기전자·건설·에너지 산업 등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
 - (자동차) 저렴한 숙련된 노동력, 서유럽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입지 등으로 인해 피아트,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
 - (전기전자) EU 가입 이후에 보쉬(Bosch), 지멘스(Siemens), 월풀(Whirlpool) 등 글로벌 회사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유럽 가전제품 생산기지로 급부상
 - (건설) 대규모의 EU 발전기금과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어 사회간접자본 등의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
 - (에너지) 현재 석탄(매장량 세계 10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 셰일가스(유럽 전체 매장량의 30% 보유) 개발 활성화 전망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1995년	2000년	2005년	2011년
농림어업	7.9%	4.9%	4.6%	4.0%
광업	3.7%	2.4%	2.5%	2.8%
전기·가스·수도	4.0%	3.7%	4.3%	4.7%
건설업	7.7%	7.8%	6.3%	8.0%
제조업	20.2%	17.2%	17.8%	17.6%
서비스업	56.5%	64.0%	64.6%	62.9%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Eurostat.

(2) 경제 성장 동력 및 잠재 위험

○ (성장 동력) 탄탄한 내수시장, 풍부한 노동력,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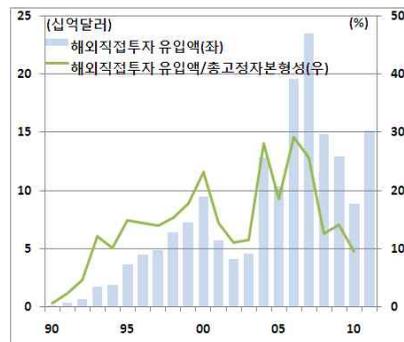
- 중동부 유럽 국가 중에서 최대의 인구 및 경제 규모를 보유
 - 소련 붕괴 이후 체제를 전환한 유럽의 舊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최대의 시장
 - GDP 규모(4,700억 달러)는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주요 3개국 GDP의 총합(4,940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
 - 인구 규모(3,820만명) 또한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의 인구를 합한 수준(4,190만명)에 육박하여 중동부 유럽 최대의 내수 소비시장 형성
- 외국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폴란드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
 - 2006년 폴란드 총고정자본의 약 29%는 해외자본에 의해 형성되었고, 경기침체기인 2010년에도 약 10%의 자본 형성은 해외직접투자에 의존
 - 해외직접투자는 EU가입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236억 달러를 기록하고, 2010년 89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11년 151억 달러로 회복
 - 2011년 폴란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151억 달러)은 인접국인 체코(54억 달러), 루마니아(27억 달러)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

<중동부 유럽 주요 국가 GDP와 인구>



자료: IMF, World Bank.
주: GDP는 2012년, 인구는 2011년 기준.

<폴란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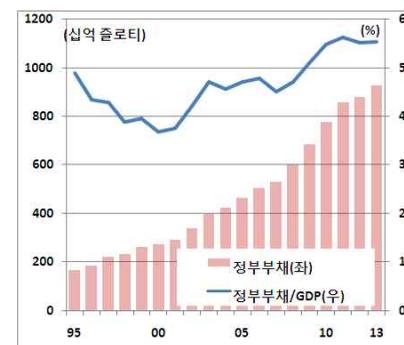


자료: UNCTAD.

○ (잠재 위험) 정부부채 증가와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잠재적 위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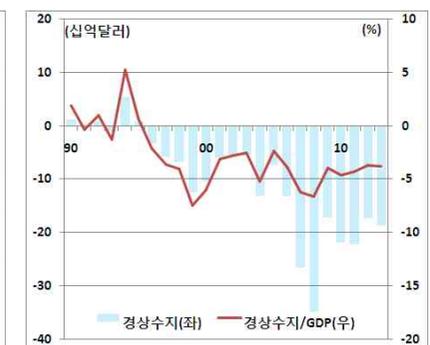
- (정부부채)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위험수위에 근접
 -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기준 약 55% 수준
 - 폴란드 헌법은 정부부채가 GDP 대비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폴란드의 높은 정부부채 비율은 경기 회복 수단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경상수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및 외부 경기에 민감한 경제구조 형성
 -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EU 가입 이후 적자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한편, 폴란드의 수출과 수입은 독일, 영국 등 EU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경기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

<정부부채 규모 및 비중>



자료: IMF.
주: 2012년은 IMF 추정치, 2013년은 전망치.

<경상수지 규모 및 비중>



자료: IMF.
주: 2012년은 IMF 추정치, 2013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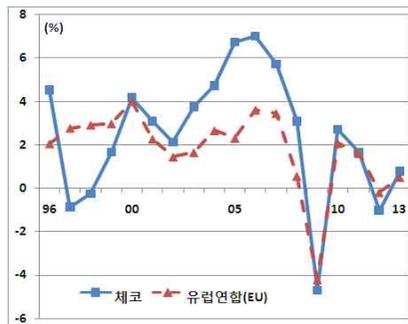
2) 체코

(1) 경제 및 산업 동향

○ (경제 동향) 경기침체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점진적 개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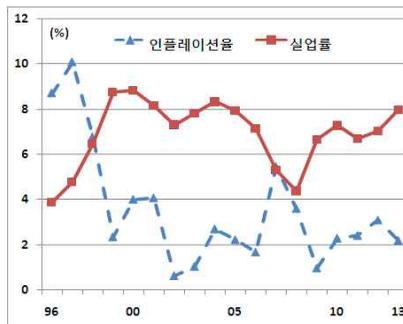
- (성장률) EU 가입 이후 급성장을 지속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었고, 아직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
 - EU 가입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04년~'07년) 체코의 연평균 성장률은 6.1%로 동일기간 EU의 연평균 성장률인 3.0%의 2배 이상
 - 한편 '08년~'12년 체코의 연평균 성장률은 EU의 연평균 성장률(-0.1%)보다는 높지만 0.3%에 불과
 - 다만 체코의 '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IMF 기준)은 0.8%로 '12년의 -1.0%에서 반등하여 경기침체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전망
- (물가/실업) 물가상승률은 안정적, 실업률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 대비 낮음
 - 물가상승률은 2012년 기준으로 3.1%의 안정적인 수준
 - 실업률은 '08년(4.4%)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년에는 7.0%를 기록하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음4)

< 경제 성장률 >



자료: IMF.
주: 2013년은 IMF 전망치.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



자료: IMF.
주: 2013년은 IMF 전망치.

4) '12년 기준으로 루마니아(7.2%), 폴란드(10.0%), 헝가리(10.9%), 불가리아(11.3%), 슬로바키아(13.5%) 등

○ (산업 동향) 체제전환 이후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였고, EU 가입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자동차, IT 산업 집중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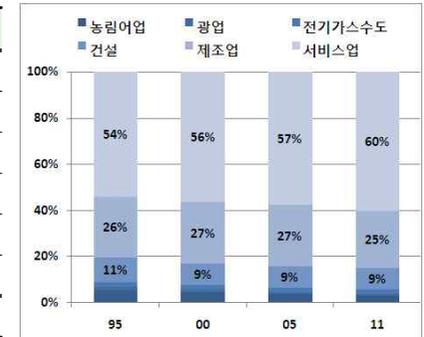
- 체제전환 이후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 등 기타 산업 비중은 소폭 감소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95년 57%에서 '11년 61%로, 고용 비중은 54%에서 60%로 상승
 - 특히 EU 가입 이후 서비스업 분야에 해외자본 유입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 제조업은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서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
-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동차, IT 등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
 - (자동차) 도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연간 120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전체 산업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중추 산업
 - (IT) 체코는 자국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IT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IBM·휴렛패커드·MS 등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

<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

	'95년	'00년	'05년	'11년
농림어업	4%	4%	3%	2%
광업	2%	1%	1%	1%
전기가스수도	5%	4%	4%	5%
건설	8%	7%	7%	7%
제조업	23%	26%	26%	24%
서비스업	57%	59%	59%	61%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Eurostat.

<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 >



자료: Eurostat.

5) '03년 이전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21억 달러, 제조업에 대한 유입액은 133억 달러인 반면 '04년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476억 달러, 제조업에 대한 유입액은 102억 달러 수준(자료: Czech National Bank).

6) 이철원·이현진·김병호, "체코의 주요 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12.25 및 KOTRA(Global window) 자료를 참조

(2) 경제 성장 동력 및 잠재 위험

① 성장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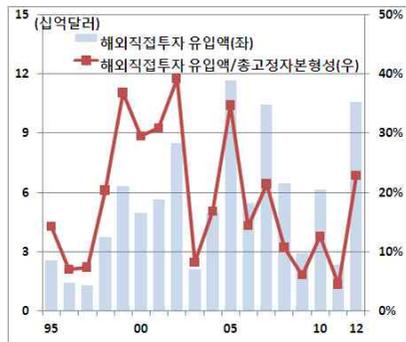
○ (자본 유입) 해외로부터의 꾸준한 자본 유입은 체코 경제 성장의 원동력

- '95년~'12년 까지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 누적액은 약 975억 달러
 - '95년~'12년 까지 매년 총고정투자(7)의 약 18%는 해외자본이 담당
 - 특히 경제성장률이 -1.0%에 불과했던 '12년도에 해외자본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약 106억 달러)하였고, 총고정투자 대비 비중도 23%로 증가

- 일인당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

- 체코의 일인당 해외직접투자 누적 유입액은 '06년 7,761달러에서 '12년 12,310달러로 연평균 8%의 증가율 기록
- 인접국인 폴란드의 해외직접투자 총유입액은 체코를 크게 능가하지만, 폴란드의 일인당 유입액(5,120달러)은 체코(12,310달러)의 42%에 불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과 비중 추이>



자료: Czech National Bank, Eurostat.

<1인당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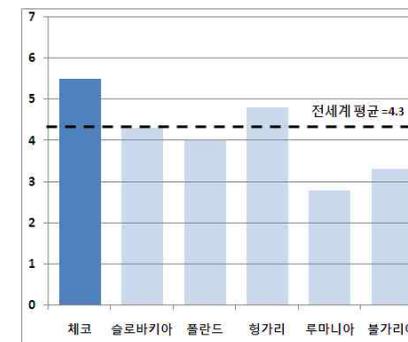
자료: EIU(Czech Invest에서 재인용).
주: 해외직접투자 누적 유입액 / 인구 수.

7) 장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신출물을 고정자산이라 하고, 생산주체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을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또는 총고정투자(Gross fixed investment)라고 함(출처: 한국은행).

○ (인프라) 중동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프라 시설 보유

- 물류, 통신,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서구 선진국들과 맞먹는 수준
 - 체코 인프라의 질적 수준(5.5)은 폴란드(4.0), 슬로바키아(4.3), 헝가리(4.8) 등 인접한 국가들에 비해 우수
 - 영국(5.6), 미국(5.6), 스웨덴(5.8), 일본(5.9)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으며 전세계 28위
- 항공, 철도수송과 전기시설 인프라 수준이 특히 우수
 - 철도 인프라의 질(4.6)은 전세계 23위 수준, 항공 인프라(6.0)는 21위, 전기 인프라(6.5)는 16위 수준
 - 체코의 철도 밀집도는 단위 면적(km²)당 0.12km로 인접한 독일(0.09km), 폴란드(0.07km), 슬로바키아(0.07km) 등을 능가⁸⁾
 - 한편 도로 밀집도는 단위 면적(km²)당 1.66km이고, 독일(1.80km), 헝가리(2.15km)에 비해서는 낮지만 슬로바키아(0.90km), 폴란드(1.30km)보다는 양호
 - 인구 백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는 73명으로 슬로바키아(75명)에 비해서 낮지만, 다른 동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음

< 국가별 인프라의 질적 수준 >



자료: WEF(2012년 기준).
주: 7점 만점 기준.

< 부문별 인프라의 질적 수준⁹⁾ >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전기
체코	3.7	4.6	4.6	6.0	6.5
슬로바키아	3.7	4.5	4.0	3.4	6.3
폴란드	2.6	2.4	3.5	3.8	5.5
헝가리	4.0	3.5	4.0	4.2	5.7
루마니아	1.9	2.2	2.6	3.4	4.2
불가리아	2.5	3.0	3.7	4.0	3.9

자료: WEF(2012년 기준).
주: 7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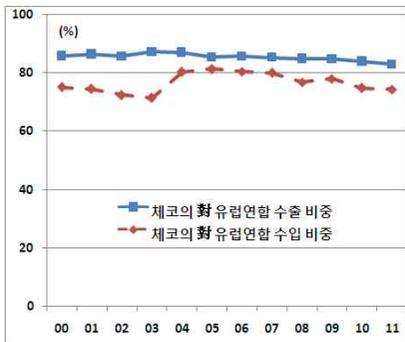
8) 국가별 철도 밀집도는 Czech Invest, 도로 밀집도와 인구 백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는 World Bank 자료 기준.
9)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해양과 접하지 않은 내륙 국가이며, 항만 인프라의 수준을 평가할 때는 내륙수로

② 위협 요인

○ (유럽 편중) 유럽연합(EU) 내에 편중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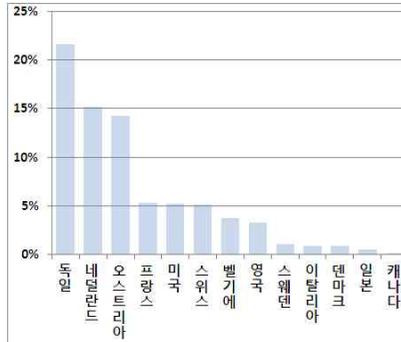
- (수출입) '00년 이후 역내 수출 비중은 평균 86%, 수입 비중은 평균 77%
 - '11년 기준으로 체코의 역내 수출 비중(83%)은 EU 27개국 중에서 슬로바키아(84.7%)에 이은 2위, 수입 비중(74.4%)은 룩셈부르크(81.5%) 등에 이은 5위
 - 특히 체코는 독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심하여 '12년 기준으로 총수출의 31.4%(492억 달러), 총수입의 25.2%(355억 달러)가 독일과의 교역에서 발생¹⁰⁾¹¹⁾
 - 현재와 같은 수출입 구조를 유지한다면, 체코 경제의 회복은 EU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자본 유입) 해외직접투자 또한 독일, 네덜란드의 역내 소수 국가에 의존
 - '93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중 70% 이상이 역내 국가에서 발생
 - 특히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의 비중이 51%에 이름

<체코의 對 유럽연합(EU) 수출입 비중>



자료: Czech Statistical Office.

<국가별 對 체코 해외직접투자액>



자료: Czech National Bank.
주: 1993년~2012년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등의 인프라 시설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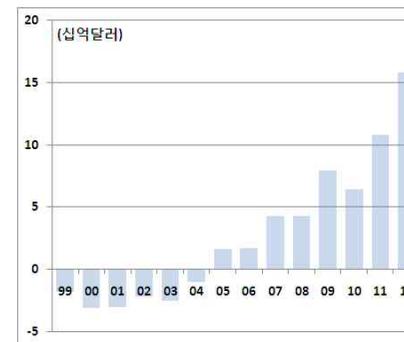
10) 독일이외에 체코 총수출의 8.9%는 슬로바키아, 6.1%는 폴란드, 5.1%는 프랑스, 4.9%는 영국에서 발생. 또한 체코 총수입의 11.1%는 중국, 7.1%는 폴란드, 6.0%는 슬로바키아, 5.0%는 러시아에서 발생('12년 기준).

11) 한편 체코의 對 한국 수출은 총수출의 0.4%(30위), 對 한국 수입은 총수입의 2.2%(12위) 차지('12년 기준).

○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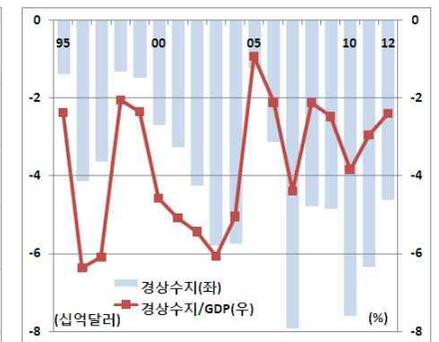
- (무역수지) EU 가입 이후 흑자 전환하였고, 흑자 규모도 점차 증가
 - '05년부터 무역수지 흑자(16억 달러)가 발생하여 '12년에는 158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
 - '10년을 제외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중에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
 - 다만 '11년에 비해 '12년의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¹²⁾
-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
 - '95년~'12년 까지 경상수지 적자 누적액은 741억 달러에 이르고, 체코의 EU 가입 이후 무역수지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
 - 다만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의 비중은 '03년 6.1%를 기록한 이후 '12년 2.4%로 점차 감소 추세

< 무역수지 규모 >



자료: Czech Statistical Office.

< 경상수지 규모와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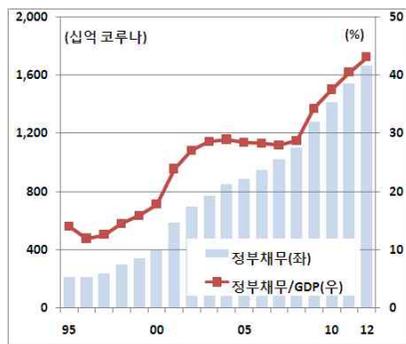
자료: IMF.

12) 체코의 '11년 수입액은 1,521억 달러에서 '12년 1,409억 달러로 112억 달러 감소하였고, '11년 수출액은 1,629억 달러에서 '12년 1,568억 달러로 61억 달러 감소.

○ (채무 누적) 정부채무와 대외채무의 증가는 체코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

- (정부채무) 정부채무는 '95년 이후 연평균 12.8%의 증가율 기록
 -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2년 정부채무 규모는 850억 달러¹³⁾, GDP 대비 비중은 43.1% 수준까지 상승
 - 체코 정부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사회복지 지출 감소 등의 정책을 통해 정부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16년 균형 재정 달성을 목표로 설정
 - 그러나 긴축 정책으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 (대외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대외채무 또한 크게 증가
 - 대외채무는 '95년 172억 달러에서 '12년 1,019억 달러로 약 6배 증가하였고, GDP 대비 비중 또한 29.7%에서 52.6%로 크게 증가
 - 특히 EU에 가입한 '04년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04년~'12년 사이의 연평균 대외채무 증가율은 약 12.6%)
 - 한편 총 대외채무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03년 7.8%(27억 달러)에서 '12년 28.3%(288억 달러)로 급증
 - 외환보유액 증가율은 대외채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외환보유액 대비 대외채무 비중은 '95년 118%에서 '12년 250%로 증가¹⁴⁾

< 정부채무 규모와 비중 >



자료: IMF.

< 대외채무 규모와 비중 >



자료: Czech National Bank, IMF.

13) '12년 체코 정부의 채무는 1,664십억 코루나이고 '12년도 평균 환율은 19.57 CZK/USD임을 이용하여 산출.
14) '95년 외환보유액은 146억 달러, '12년 외환보유액은 407억 달러(자료: World Bank, KO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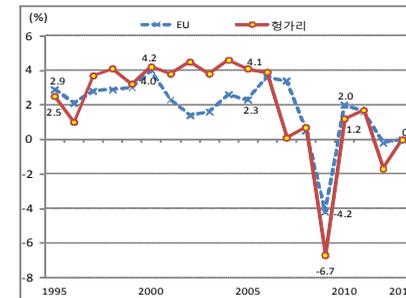
3) 헝가리

(1) 경제 및 산업 동향

○ (경제 동향) 유로존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이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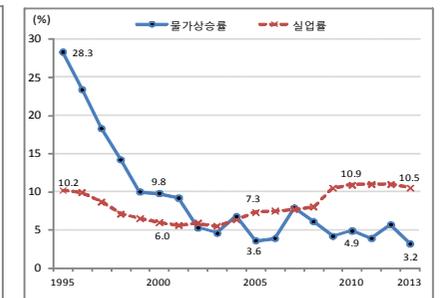
- (성장률) EU 가입 이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 회복이 더디고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2000~2006년까지 4%대의 경제 성장으로 EU평균 보다 높게 유지되었으나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헝가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EU의 국가별 재정적자 기준치인 GDP대비 3% 달성을 위한 긴축재정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도 매우 낮음
 - 이에 2013년에도 헝가리 경제는 2012년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물가) 물가상승률은 하락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10%대로 급등
 - 2007년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률도 10% 이상으로 높게 유지
 - 한편, 헝가리는 EU 27개국 중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은 나라임. 특히 2007년에는 포린트화 약세 등으로 물가가 전년대비 7.9%까지 급등하였으나 이후 하락세. IMF에 따르면 2013년 헝가리의 물가상승률은 3.2%전망

< 경제 성장률 >



자료: IMF.
주: 2013년은 IMF 전망치.

<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



자료: IMF.
주: 2013년은 IMF 전망치.

○ (산업 동향)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였고, EU 가입 이후 자동차, IT 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있음

- 체제전환 이후 농업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성장하면서 산업국가로 변화

- 헝가리 경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95년 8.5%에서 '11년 4.5%로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은 '95년 61%에서 '11년 63.4%로, 제조업도 동기간 21.3%에서 22.9%로 소폭 상승
- 특히,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이 우수한 인재, 저렴한 노동비용이 가능한 헝가리를 생산기지로 활용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오히려 확대됨
- 산업별 고용측면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은 1995년 55%에서 2011년 63.1%로 늘었지만, 제조업은 동기간 22.0%에서 20.8%로 소폭 줄어들음

- 외국인 투자 기업의 활발한 진출로 자동차,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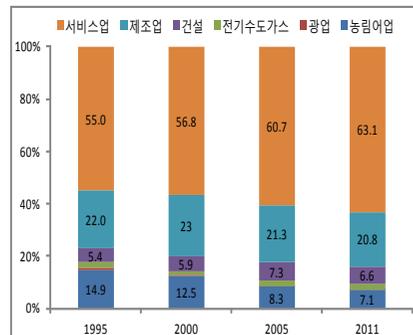
- (자동차) 폭스바겐, GM 엔진생산 부문, 스즈키, 다임러의 조립생산기지로서 역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8년도에 34만대 생산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최근에는 25만대(2012년 추정) 수준
- (IT) 컴퓨터 조립 및 통신 장비생산은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한편 정보·통신 산업도 2004년 EU가입과 함께 자유화되면서 성장세가 빠름

<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

	'95년	'00년	'05년	'11년
농림어업	8.5	5.9	4.4	4.5
광업	0.5	0.6	0.9	1.3
전기가스수도	3.6	4.0	3.5	3.9
건설	5.1	5.3	5.4	4.0
제조업	21.3	22.9	22.3	22.9
서비스업	61.0	61.3	63.4	63.4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Eurostat.

<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 >



자료: Eurostat.

(2) 경제 성장 동력 및 잠재 위험

① 성장 잠재력

○ (자본 유입) 경제 자유화와 EU 가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헝가리의 제조·서비스업이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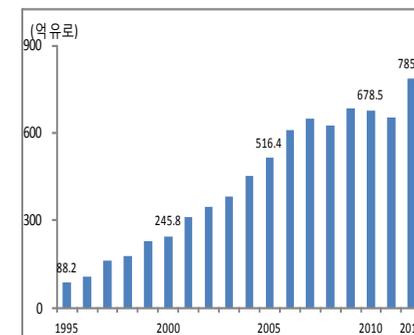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주춤했던 외국인투자자금이 2012년 재차 확대

- 헝가리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금은 2012년말 기준 785.4억 유로에 달함. 외국인직접투자는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유럽재정위기로 순유출로 전환됨. 하지만 2012년 전년대비 132억 유로가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
- 이는 독일의 다임러, 오펔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제조 중심의 FDI를 큰 폭으로 늘리는데 기인하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헝가리 내수보다는 유럽 전체 판매를 목적으로 헝가리로 그린필드형 FDI를 재차 확대하고 있음

- 컴퓨터, 자동차 등 제조업과 도소매, 금융,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 2011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15.1%가 제조업, 76.8%는 서비스업에 투자
- 제조업은 헝가리의 저렴한 우수한 노동력과 입지적 이점 등을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와 자동차 산업에의 투자가,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업이 높은 비중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누계>



자료: MNB(헝가리 중앙은행).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산업	금액	비중
농림어업	3.5	0.5
제조업	98.6	15.1
컴퓨터, 전자	21.0	3.2
전기수도가스	23.8	3.7
건설업	9.5	1.4
서비스업	501.8	76.8
사업서비스	185.2	28.3
기타	16.3	2.5
합계	653.4	100

자료: MNB(헝가리 중앙은행).
주: 2011년 누적이며, 비중은 합계 금액 대비임.

○ (인프라)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물리적 인프라와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가 모두 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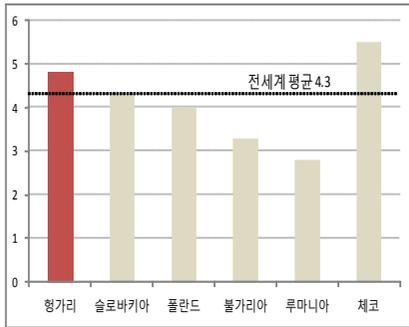
-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이 여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우수

- WEF에 따르면, 헝가리의 전반적 인프라 수준은 4.8로서 전세계 평균(4.3) 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음. 또한, 폴란드(4.0), 슬로바키아(4.3), 불가리아(3.3) 등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도 앞섰다고 평가됨
- 인프라 분야별로는 철도, 전력 및 통신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

-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 또한 상대적으로 발달

- 헝가리는 FDI가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에서 5.4(평균 4.6)로 세계 12위로 선진국들과 비슷하게 평가받고 있음. 반면, 체코(5.3) 18위, 폴란드(4.8) 58위, 루마니아(4.3)는 97위로 헝가리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한편, 헝가리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이 5.1로 세계 20위, 산학 협력도 4.3으로 세계 37위, 인구 100만명당 국제특허출원(PCT) 출원도 22.1개로 세계 27위로 경쟁력이 매우 높음¹⁵⁾

< 동유럽 국가의 전반적 인프라 수준 >



자료: WEF(2013년 기준).
주: 7점 만점 기준.

< 과학기술 인프라 질적 수준 >

	수치	순위
FDI와 기술이전	5.4	12위
과학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5.1	20위
R&D 산학협력	4.3	37위
국제특허출원 /100만명당	22.1	27위

자료: WEF(2013년 기준).
주: 7점 만점 기준이며, 총 144개국 순위임.

15) 한국은 FDI와 기술이전 4.5점으로 83위, 과학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4.9로 24위, R&D 산학협력 4.7로 25위, 인구 100만명당 국제특허출원 161.1개로 9위로 평가받고 있음.

○ (숙련된 노동력) 높은 교육수준과 뛰어난 IT역량을 보유한 풍부한 인력에도 임금수준은 여전히 낮아 경쟁력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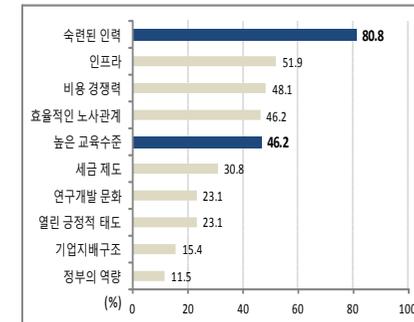
- 풍부한 숙련 노동력은 헝가리의 가장 큰 성장잠재력으로 평가됨

- IMD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경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5가지 경쟁력은 숙련된 노동력이 80.8%로 1위, 믿을 만한 인프라 51.9% 2위, 비용 경쟁력 48.1%로 3위, 효과적인 노동 관계와 높은 교육수준이 46.2%로 공동 4위
- 헝가리의 문맹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낮고, 전 인구의 약 15%가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아 고급 인력이 풍부함. 특히, 여타 동유럽 국가와 다르게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IT 관련 인력이 풍부
- 취업자 1000명당 연구자 수는 2000년 3.4명에서 2011년 5.63명으로 높아졌고, 노동력의 50% 이상이 영어, 독일어 등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¹⁶⁾

-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함에도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아 경쟁력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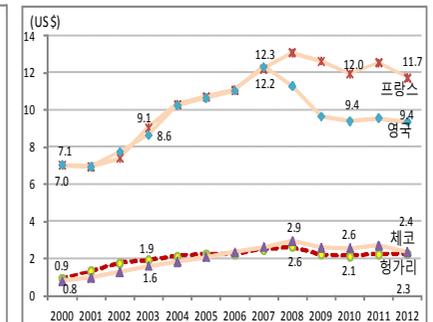
- 헝가리의 미 달러화로 환산된 실질 최저임금은 2000년 시간당 0.9달러에서 2008년 2.6달러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포린트화의 약세 등으로 2012년 기준 2.3달러로 하락
- 헝가리의 실질 최저임금은 프랑스의 20%(2012년 기준), 영국의 25% 수준에 불과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헝가리의 핵심 경쟁력 순위 >



자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2013년.
주: 15개 항목을 설문조사로 순위를 정함

< 실질 최저임금 비교 >



자료: OECD.
주: 미 달러화로 환산된 실질최저임금임.

16) <http://www.sourcingline.com/outsourcing-location/hungary>

② 위험 요인

○ (유럽 편중) EU와 기계·운송장비에 편중된 수출입 구조가 위기에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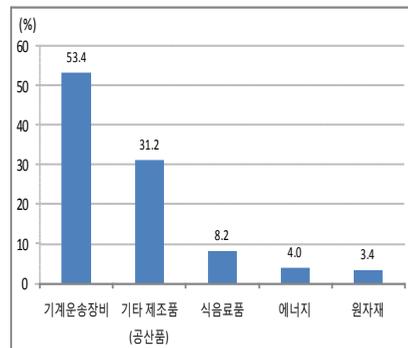
- (수출입 구조) 헝가리의 EU내 수출입 비중은 70% 이상으로 매우 높음
 - '12년 기준 헝가리의 총수출은 800.9억 유로, 수입은 732.7억 유로에 달함. 2009년 이후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세가 낮은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지속
 - 하지만 헝가리의 EU 27개국에 대한 무역 비중은 수출 76%, 수입 70.4%로 매우 높아 역대 경제 상황에 따라 무역 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될 수 있음
 - 국가별로는 수출의 경우 독일 25%, 루마니아 6.0%, 슬로바키아 5.9%, 오스트리아 5.8%, 이탈리아 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은 독일 24.8%, 러시아 8.0%, 오스트리아 6.3%에 집중되어 있음
- (주요 수출입 품목) 기계·운송장비가 전체 수출의 53%를 차지
 - 수출 품목도 기계·운송장비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기타 제조품(공산품)이 31.2%를 차지하며 다변화되어 있지 않음. 수입도 기계·운송이 34%, 에너지가 12.7%를 차지하고 있음
 - 동유럽 국가 중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통신기기, 컴퓨터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투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무역 비중이 높음

<헝가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

	수출	수입
1	독일 (25.0%)	독일 (24.8%)
2	루마니아 (6.0%)	러시아 (8.0%)
3	슬로바키아 (5.9%)	오스트리아 (6.3%)
4	오스트리아 (5.8%)	중국 (5.7%)
5	이탈리아 (4.6%)	슬로바키아 (5.6%)

자료: Kotra, Global Window.
주: 2012년 기준임.

<헝가리의 주요 수출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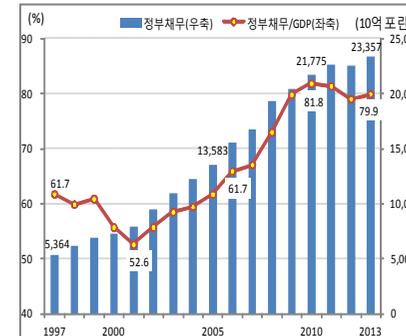


자료: Kotra, Global Window.
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이며, 2012년 기준임.

○ (채무 누적) 정부채무와 대외채무의 증가는 헝가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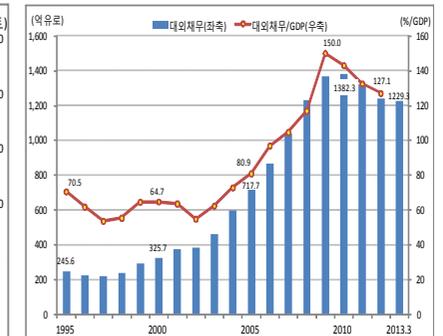
- (정부채무) 1997년 이후 정부채무가 4배 이상 증가됨
 - 헝가리의 정부채무는 1997년 5.4조 포린트(255억 유로)에서 꾸준히 증가하며 2012년 22.6조 포린트(781억 유로)로 4.2배 늘어남. IMF에 따르면, 2013년에도 전년대비 3.6% 증가한 23.4조 포린트에 달할 전망이다
 - GDP 대비 정부채무 규모는 1997년 61.7%에서 경제 성장 등으로 2001년 52.6%로 낮아졌지만 2010년 81.8%까지 높아짐. 하지만 IMF·EU의 구제금융으로 인한 긴축정책으로 정부채무 비율은 소폭 하락함
 - 2000년대 중반 헝가리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7~9%에 달하였으나 2012년 -2.5%, 2013년 -3.1%로 낮아짐
- (대외채무)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으로 대외채무 또한 크게 증가
 - 대외채무는 1995년 245.6억 달러로 GDP 대비 70.5% 수준이었으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대외채무도 2009년 1,371억 유로, GDP 대비 150% 수준까지 확대됐다가 4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소폭 감소
 - 한편, 헝가리의 외환보유고는 2012년 말 기준 677억 달러로 대외 충격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정부채무 규모와 GDP대비 비중 >



자료: IMF.
주: 2013년은 전망치임.

< 대외채무 규모와 비중 >



자료: Bloomberg, Eurostat.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2.3	2.6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5	1.7	2.1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7.1	2.5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9	-5.1	1.0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198	39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7	143	270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4	1,413	5,589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4)	(0.8)	(2.0)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1,269	5,319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0)	(-2.7)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1	1.6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1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7	1,085	1,123	1,10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